

제4회 시흥매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위원장	학교장
본 회 의 회 의 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요일) 15:30</li> <li>○ 장소 : 본교 2층 회의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li> <li>5. 안건심의                      6. 폐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일정(부의된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3.3.1.자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 심의</li> <li>2. 2023학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 계획(안)</li> </ul> </li> </ul>			
간사 (○○○)	<p>지금부터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9일 제2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5분, 교원 위원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11분 중 9분이 참석하셔서 과반이 넘어 성원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위원장님의 개의 선언과 안건심의가 있겠습니다.</p>		
교장 (○○○)	<p>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면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히 심의할 사안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는 곧 학부모 대위원회도 예정되어있고, 11월 말에는 학예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체육 교육이나 국악 교육, 꿈지락교실 등 바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애써주시고 또한 우리 학부모 위원님들 덕분에 학교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p>		
위원장 (○○○)	<p>오늘 11명의 위원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안건 2023.3.1.자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p>		
교사 (○○○)	<p>안녕하세요? 교무부장 ○○○입니다. 2023.3.1.자 교장공모제 실시 여부를 심의받고자 합니다. 교장공모제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에 적합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 행정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교장 임용 제도입니다. 실시 대상교는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 선생님의 정년 퇴임이나 임기 만료 등으로 학교장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p> <p>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로 자율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 내부형에 해당되며, 어제까지 교직원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를 심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면 이걸로 끝이 나고, 신청을 하기로 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개별 학교에 통보를 해줍니다. 도서벽지, 농어촌, 소외지역, 낙후 지역의 희망 선호 정도를 조사해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p>		

대상 학교에서는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 경영계획 설명회를 실시해서 심사를 통해 3명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 교육지원청에 추천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3명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해서 다시 도 교육청에 신청하면 도 교육청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해서 교육부에 임용 제청, 교육부 장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의견 수렴 결과를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400명 정도인데 가구수로 실시하면 총 307가구입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132가구가 찬성, 반대 12가구, 무효표 2가구, 미회신 161가구로 합산 총 307입니다. 교직원들은 총 43명을 대상으로 했고 찬성 12명, 반대 30명, 무효 1명 해서 총 43명입니다. 밑에 찬성 의견 수렴 퍼센트지 보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 학부모 의견은 찬성이 많은 것 같네요. 다만 미회신과 비교했을 때는 달라지겠네요.

교사 (○○○) 네, 내신 분들 중에는 찬성이 많고, 미회신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 과반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사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이 없습니다.

위원 (○○○) 찬성과 반대 이 부분만 보고 결정을 해야 할까요?

교사 (○○○)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회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심 정도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도 교장공모제에 관한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내신 분들은 찬성이 많았지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안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 사실 제일 걱정인 것이, 우리 학교가 교통편에서는 농어촌이나 소외지역만큼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를 진행했을 때 과연 지원자가 몇이나 계실까 그게 제일 걱정스럽거든요. 만약에 한 분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사 (○○○) 교장공모제를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금 교감 선생님도 조금 계시면 교장 자격증을 따시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시는 게 교장공모제에 반대가 되는 거고요. 교장공모제를 한다는 것을 예를 들면 교장 자격증은 있으나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 공모제를 신청해서 미리 교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장공모제가 사실 예전에는 붐이 있었지만 현재는 같이 연수를 들어 보셨지만 많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 저도 기존에 교장공모제를 해본 학교에서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교사 (○○○) 지금 교장선생님도 일반발령으로 오셨는데 잘 해주셨고, 이번에 혁신학교도 신청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와서 아이들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교장선생님께서 빨리 가서서 아쉽습니다. 큰 아이가 졸업할 때 보니 교장선생님이 4명이 바뀌어서 당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공모제를 하면 한 교장 선생님의 임기가 길어질 것으로 기대하여 많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찬성하게 되면 12월 16일 안으로 이게 모두 끝나야 하는 건가요?

교사 (○○○) 시기적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저희가 신청교로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교감 (○○○) 교육청에서 내일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했고, 지역교육청-도교육청으로 신청교 명단이 올라가서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교장공모제 학교로 선정이 되면 이제 공모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위원장 (○○○) 운영위원회도 계속 열리게 되나요?

교감 (○○○)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 다만 이런 절차들은 추후에 할 일입니다.

위원 (○○○) 교장자격증 유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편생활을 최소 15년 이상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모제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장공모제를 통해 좀 더 발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교통편도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기는 합니다만, 교직원분들 대부분이 자차로 이동하시는 것 같기더라고요.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설문결과로 보았을 때 미회신인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 의견 수렴은 현재 끝난 상황입니다.

위원 (○○○) 50% 이상이 미회신을 하다보니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보면 공모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사 (○○○) 아무래도 교직원과 학부모 찬성이 모두 다 높을 때 교육청 쪽에서도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지요.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위원 저도 공모제 하면 좋겠는데 역시나 교통이 걸립니다. 자차 이동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임 교장

(○○○)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도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공모제가 좋기는 할 것 같지만 일반발령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

위원 저도 교장선생님께서 자주 바뀌시는 것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공모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도창초도 교장공모제를 했고 현재 안정화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미회신이 걸리는데, 공모제에 대한 홍보가 더 있었다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교사 교육청 연수에서도 내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해서 안내장으로 사전 안내를 하고, 투표안내장에 모두 직인을 찍고 일련번호를 매겨서 안내장으로 재차 안내하고 문자로도 한번 안내하였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텐데 안 보신 분들은 또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학부모님들께서 교장공모제 투표를 한 두 번 해보신 것은 아닐 겁니다.

(○○○)

교사 저희가 또 혁신학교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덕분에 학생들도 문화예술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공모제가 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이게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업무처럼 다가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좀 더 많이 품고 그래야 할 시간에 업무를 또 이렇게 쟁겨야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더 있으신가요?

(○○○)

위원들 없습니다.

교사 교장공모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

(투표 및 개표 진행)

위원장 투표 결과, 오늘 참석한 위원 9명 중 반대 7표, 찬성 2표로 교장공모제 반대가 과반을 넘어 2023.3.1.자 교장공모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안건 2023학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선생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사 안녕하세요? 본교 방과후 부장 ○○○입니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부서개설 및 강사채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개설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있었던 수요조사에서 컴퓨터부, 영어부 등 19개 부서를 신청해주셨습니다. 이 중 학습의 향상성과 연속성을 위해 올해 3분기까지 있었던 15개 부서는 계속 이어가고, 5명 이상 신청한 부서인 탁구부와

(○○○)

캘리그래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총 17개 부서를 신설하여 모집하려고 합니다. 방과후 강사 채용 관련해서는 공고를 내서 11월 4일부터 10일, 일단 내일 오후 2시까지 서류를 받고 저와 방과후 담당 선생님이 서류심사를 합니다. 심사 원칙에 따라 배점을 하여 2배수를 선정합니다. 2차 면접심사는 11월 17-18일 양일에 거쳐 실시합니다. 면접 심사자는 교감 선생님, 저, ○○○ 학부모 위원님, ○○○ 학부모 위원님입니다. 면접 불참 시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2023학년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기타의견 따로 있으신 분 계실까요?

위원  
(○○○)                      학교 측에 부탁드립니다 싶은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장 개방이 안 되어 놀지 못하여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곳이 없다 보니 학교 근처 빌라나 도로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통안전 외에도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관해 안전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감  
(○○○)                      전체적으로 안내장을 보내고 각 학급에서 담임지도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네, 그리고 빌라들 중에 자전거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들이 간혹 있는데, 아이들이 그게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막 타더라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도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불시에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사고 위험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모나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전거를 사줄 때 꼭 세트로 사주셔서 불편하더라도 착용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                      학교 게시판에 운동장은 개방한다고 붙어있는데 5시-5시 반이 되면 기사님이 정문을 잠그십니다. 6시까지도 돌봄도 있고 하니 6시까지는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문이 잠겨있어서 아이들이 담을 넘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야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8시까지는 개방한다고 하는데, 문이 항상 잠겨있더라고요. 혹시 정문은 잠겨있고 후문은 열려있는 건가요?

교감  
(○○○)                      제가 알기로는 본교에 있는 시설관리센터가 6시 퇴근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늦게 나가실 때 후문도 잠그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후문의 경우에는 7시쯤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열고 들어와서 활동 마치고 나갈 때까지 열려있습니다. 정문은 돌봄교실이 지금 7시까지 운영인데 대부분 그 전에 귀가하다 보니 당직 기사님께서 일찍 잠그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                      돌봄 학생들이 일찍 귀가하더라도 그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원래 아이들이 모두 나가는 시간만큼은 열어두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후문도 잠겨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보니 학생들 사이에 후문 비밀번호가 소문이 나서 열고 다닌다고 합니다.

교감  
(○○○)

현재는 열쇠 자물쇠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

당직기사님께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시에 잠그시는 지 여쭙보니 유치원 나가면 다 잠그신다고요. 돌봄이 끝나기 전에 5시 반이 채 안 됐는데도 잠그셔서 말씀드렸는데도 잠그시더라고요.

교장  
(○○○)

저희도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네, 문을 열어놔 주시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감  
(○○○)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무 오래 밤늦게까지 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은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금방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기타 안건 있으실까요?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

그럼 이상으로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록자: 간사 ○○○(인)